

# 황순원의 「일월」을 통해 본 백정의 문화사\*

김종욱\*\*

**초록** 1960년대에 발표된 황순원의 장편소설 「일월」은 백정 문제를 다루어 문단 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소설은 백정 출신의 형제를 통해 사회적 차별에 대한 마이너리티의 대응 방식을 그렸다. 소설 속에서 형은 자신의 직업을 신성시하는데 비해, 동생은 비천한 신분을 감춘 채 부르주아지로의 변신을 시도했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이 작품의 독창적인 형식이라기보다 마이너리티를 그린 여러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런데 「일월」에서 황순원은 백정을 신분적 차별을 받는 존재로 그리고 있지만, 신분제가 철폐된 지 70여 년이 지난 상황을 고려하면 시대착오적인 듯하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그려진 백정의 모습 속에서도 신분적 차별보다는 직업적 혐오가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차원에서 백정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하려는 작가의 편협한 시각이 서사적인 균열을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일월」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마이너리티로서의 백정은 신분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계급, 그리고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각을 통해서만 백정의 존재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연대의 다양한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황순원, 백정, 신분, 직업, 계급, 마이너리티, 교차성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신분의 종말과 새롭게 호명되는 ‘백정’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백정’(白丁)은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직업’을 의미하는 현대적 맥락과는 달리 이 말은 본래 ‘신분’을 의미했다.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백정은 “단독으로 정호(丁戶)를 구성하여 토지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한 사람의 정(丁)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sup>1</sup> 그런데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운 지배 체제가 자리잡던 시절, 백정 속에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을 새롭게 포함시키면서 호적에 올리고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sup>2</sup> 본디 재인과 화척은 사냥이나 도축, 유기와 피물 제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백성들과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동화정책을 통해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는 양천제(良賤制)에 따라 양인과 천인으로 엄격하게 구분한 신분제 사회였다. 따라서 과거에 천대받던 재인과 화척을 백정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차별은 금세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신백정’이라 불리면서 원래의 백정과 구분되다가, 나중에 원래의 백정이 양인이나 상민이 되면서 백정이라는 이름까지 물려받았지만, 차별은 계속되었다. 변화한 것은 그들을 가리키는 말뿐이었다. 그들은 제도적으로 양인에 소속되었다더라도 농업이나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양인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았다.

1 이러한 해석은 없다는 뜻의 ‘백’(白)과 사람을 가리키는 ‘정’(丁)의 결합으로 이해하여 백정을 토지가 없어서 “일반 민정(民丁)에서 일정한 역(役)의 부담이 없는 자”라고 보았던 이우성의 「한인, 백정의 신해석」(『역사학보』 19, 1962)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철영은 「고려 말 조선초 백정의 신분과 차역」(『한국사론』 26, 1991)에서 “유사시에 군대에 충보되어 언제라도 군역을 질 수 있”는 예비군 성격의 농민으로, 유창규는 「고려의 백정 농민」(『전남사학』 11, 1997)에서 “국유지를 경작하는 전호로서 토지를 경작하여 지대를 국가에 바치며 역역에 동원”되었던 농민층으로 재규정한 적이 있다.

2 이준구(1998), 「조선전기 백정의 범죄상과 제민화 시책」, 『대구사학』 56, pp. 103-104.

몸은 비록 양인이었으나 직업 때문에 천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 그들은 ‘신량역천’(身良役賤)이었던 것이다.

이 무렵을 다룬 홍명희의 장편소설 『임격정』(林巨正, 1928)은 임격정이 태어나기 전을 그린 <봉단편>과 임격정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피장편>에서 백정들의 다양한 삶을 그린다. 연산군 시절 홍문관 교리였던 이장곤은 유배지를 탈출한 후 함경도 함흥에 숨어 고리백정 양주삼의 딸 봉단과 혼인했다가 중증반정으로 동부승지로 승차한다. 그런데 이장곤이 백정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봉단은 왕의 특지를 받고서야 정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양반과 백정 사이의 통혼을 금지했던 시속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봉단의 숙부였던 양주팔의 삶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의술이 뛰어나고 학문이 높아 ‘백정학자’로 불리었고, 봉단을 배행해 함흥을 떠난 뒤에는 묘향산에서 이천년에게 천문지리와 음양술수를 전수받기도 했다. 그런 양주팔이 생계를 위해 함흥 시절부터 손에 땀 고리쟁이 일을 시작했다가 동네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 “성균관 동편 반수(泮水) 건너”편으로 이사를 한 뒤에야 갖바치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 후 조광조, 김식 등 당대의 학자들과 학문적으로 교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출가하여 안성 칠장사에 머물면서 병해대사로 활동한다. 이처럼 양주팔이 아무리 학식이 높더라도 백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고리백정이거나 갖바치, 혹은 승려에 불과했다. 흔히 ‘칠반공천’(七般公賤)이나 ‘팔반사천’(八般私賤)이라 불리던 천역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봉단의 외사촌 돌이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장곤을 찾아 상경했다가 하인에게 무시를 당한 뒤 삭불이의 주선으로 양주로 장가를 간다. 양주 본바닥에서 소백정 일을 하고 있는 선이에게는 고리백정이었던 돌이가 사윗감으로 전혀 손색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고리백정 아버지와 소백정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임격정이다. 그래서 임격정의 혼인 또한 신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다. 임격정의 장인과 장모 갑산 관아의 노비였을 때, 수청을 들라는 고을 수령의 명을 피해 백두산으로 도망쳐서 낳은 것이 윤총이

었으니, 그녀 또한 천인 신분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임거정』에서는 주인공을 위시해서 많은 인물들이 신량역천에 속한 백정 신분이었다. 그래서 여느 양인과 다른 사회적 차별을 받아야 했다. 돌이가 결혼한 뒤 장인이 소 잡는 시범을 보이는 대목을 제외하고는 백정의 일상을 찾기 어렵지만, 돌이의 아들 임격정이 의형제들을 차례대로 만나 의적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적 요소는 백정이라는 신분과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었던 것이다.

임격정이란 옛날 봉건사회에서 가장 학대받던 백정계급의 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가슴에 차넘치는 계급적 ○○의 불길을 품고 그때 사회에 대하여 ○○을 든 것만 하여도 얼마나 장한 쾌거였습니까. 더구나 그는 싸우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서 진두에 나선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백정의 단합을 먼저 꾀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특수 민중이란 저희들끼리 단결한 가능성이 많은 것이외다. 백정도 그러하거나와 체장사라거나 독립협회 때 활약하던 부부상이라거나 모다 보면 저희들끼리 손을 맞잡고 의식으로 외계에 대하여 대항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 필연적 심리를 잘 이용하여 백정들의 단합을 꾀한 뒤 자기가 앞장 서서 통쾌하게 의적 모양으로 활약한 것이 임격정이었습니다.<sup>3</sup>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신분제에 기초한 제도적 차별은 사라졌다. 노비 해방은 신분제에 기반한 봉건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이제 신분을 대신하여 능력이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자리잡는다. 하지만, 법률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차이는 여전했다. 양반의 특권이 해체되고 모든 사람에게 출세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도, 아무런 자본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성공의 기회를 잡기는 불가능했다.

— www.kci.go.kr

3 홍명희(1929), 「『임거정전』에 대하여」, 『삼천리』 1, p. 42.

신분제 철폐 이후 노비들이 내쫓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단순히 노예 근성 때문만은 아니다. 새로운 능력주의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할 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백정에 대한 시선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새롭게 호적을 정비하고 근대적인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과거의 신분이 완전히 소거된 노비나 다른 백정과 달리 도축업에 종사하던 백정만은 ‘도한’(屠漢)이라는 이름으로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새로운 능력주의 사회에서 백정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했다. 짐승을 도축하는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 새로운 ‘계급’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홍명희처럼 ‘가장 학대받던 백정계급’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조선시대 내내 백정은 ‘신량역천’에 속했던 만큼 양인 중에서 최하층이었을 망정 천인보다 높은 위치였다. 따라서 봉건시대에 ‘가장 학대받던 백정계급’이라고 한다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천인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렇지 않고 근대 이후에 도축업에 종사하던 이들을 ‘가장 학대받던 백정계급’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신분에 따른 봉건적인 차별이 아니라 직업에 따른 근대적인 혐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봉건시대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백정들이 모두 신분 때문에 천대받았지만, 근대에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이들만이 백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봉건적 신분제에서 연원하긴 해도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이다.

## 2. 마이너리티의 형상화와 ‘비밀’의 서사적 기능

신분제가 철폐되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1960년대에 발표된 황순원

의 장편소설 「일월」(日月)은 백정 문제를 다루어 문단 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소설은 1962년 1월부터 『현대문학』에 처음 연재되었지만, 한편의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1962년 1월부터 5월까지 제1부를 다섯 번 연재한 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2부를 일곱 번 연재했으며, 1964년 8월부터 1964년 12월까지 제3부를 다섯 번 연재한 뒤에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재가 끝나자마자 여섯 권의 『황순원전집』(창우사, 1964)에 수록했던 것으로 미루어 이 작품은 작가 황순원에게 꽤 중요했던 듯하다. 더욱이 형평운동의 역사가 잊혀지던 시절에 마이너리티로서의 백정을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삼일문화상 수상작으로 선정(1966년)된 것이라든가, 일찌감치 ‘문예영화’로 제작(1967년)된 것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일월」은 우연히 백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축학도가 주인공이다. 이 사실을 처음 안 것은 대학에 재직하던 ‘지교수’였다. 그는 어느 여름날 오래된 다듬잇돌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디나못골에 갔다가 우연히 ‘본돌영감’을 만난다. 백정의 옛 풍습을 지키는 모습이 호기심을 느끼던 중 뜻밖에도 본돌영감의 동생이 대륙상사를 경영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사실 지교수는 대륙상사 사장 ‘상진영감’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그래서 지교수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으로 백정에 관한 문헌 연구와 현장 답사를 준비한다.

지교수의 눈에 비친 본돌영감과 상진영감 형제는 꽤 다르다. 신분제가 여전한 시절, 그들의 아버지는 백정에 대한 차별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멸시를 받았다. 예컨대 씨름대회 결승에 올랐을 때에는 “백정은 소하구나 싸워라”라는 구경꾼의 야유를 들어야 했고, 그렇게 억울하게 우승을 놓친 뒤에도 상으로 받은 소를 잡아 달라는 요구에 묵묵히 응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신분제가 철폐된 뒤에도 큰아들 본돌영감은 전래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며 사회적 냉대를 감내하는 것이 백정의 본분이라 여긴다. 대신 그는 소를 죽이는 것이 비천한 일이 아니라 “극락에 가기 위해 도를 닦”<sup>4</sup>기 위한

신성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백정이라는 표식으로 옷에 매달았던 쇠꼬리털을 영험하게 여기며, 소를 죽일 때 쓰던 칼도 신성시한다.

본돌영감은 온갖 천대와 멸시도 칼잡이의 세계를 지켜가는 한도로써 달게 여겼고, 이런 자기를 보호해 주는 소뿔이며 쇠꼬리털을 이 세상 잡것을 물리치는 한 부적으로 신성시했다.

그러던 것이 자기가 직접 소 잡는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쇠뿔과 쇠꼬리털에 향했던 그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칼로 옮겨졌다. 본시 소는 신성한 동물이고, 이를 죽여 혼백을 상계로 올려보내게 하는 칼도 절대 신성하다. 그의 이러한 신앙과도 같은 집념은 점점 더 굳어져, 자기 맞아들과 큰손자를 죽게 한 청년의 아버지를 이 신성한 칼로 죽였으니 그가 극락에 갔음에 틀림없다고까지 믿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자기네의 이 신성한 세계를 외부로부터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필수룩 세상사람들과 멀리했다. 예수교인들의 공동묘지를 다른 데로 옮겨 보려고 하는 것도 그런 표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었다.(p. 180)

이처럼 본돌영감이 소 잡는 일을 신성화함으로써 세속적 낙인을 견디는 것과 달리, 상진영감은 신분적 차별 때문에 고통 받던 고향을 버린다. 그리고 백정에게 사용되던 ‘돌’(塙)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차돌’이라는 이름도 바꾸고 측량기사 보조로 일하면서 악착스럽게 돈을 모은다. 그가 처음으로 맡았던 일은 “십삼 도 전체를 세부측량하기 위해 많은 인원”(p. 121)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1910년대에 이루어진 토지조사사업임이 분명하다. 그 무렵은 이미 신분제가 철폐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측량기사 조수가 되는 데에 아무런 제한도 없었다. 그런데 측량기사 조수로 일하는 동안

4 황순원(1983), 『일월』(황순원전집 8권), 문학과지성사, p. 27. 이하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 말미에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뜻밖의 소득’을 얻게 된다. 소유주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을 자기 명의로 옮겨서 적지 않은 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 집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려 대륙상사를 차렸고, 전후의 혼란기에 제분공장을 경영하여 한국에서 손꼽히는 회사로 성장시킨다.

비록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상진영감은 대륙상사 사장이 됨으로써 신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듯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로 호적을 옮기고 나서 가족과 왕래를 끊었고, “자기의 핏줄을 묻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자기를 소생”(p. 366)시키려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불사했으며, 백정에게 금지되었던 ‘인’(仁)이라는 글자를 넣어 자식의 이름을 인호, 인철, 인주, 인문이라고 지었다. 어린 시절 백정의 자식이라 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돌을 움켜쥐던 그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성공한 신흥 부르주아계급으로 변신했다.

그렇지만, 상진영감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며 커다란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큰아들 인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경기도 광주군수로 부임했다가 백부인 본돌영감을 만나게 되고, 이에 두 아들에게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도 알려진다. 그리고 작은아들 인철이 사촌형 기룡을 찾아간 것이 은행에도 알려져 대출마저 끊기는 바람에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백정 출신이라는 오래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진영감은 자살하고 만다.

이처럼 『일월』은 본돌영감과 상진영감을 통해 사회적 차별에 대한 마이너리티의 대응 방식을 그린다. 사실 마이너리티의 삶은 억압과 혐오를 받는 경험으로 채워지기 십상이다.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소한 행위조차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어렵다. 그 순간 자신이 다수의 사람들에 속하지 못하는 마이너리티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이너리티는 자신을 감추는 데 익숙하다. 물론 은폐가 정체성을 숨기는 것만은 아니다.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는 다른 정체성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은폐는 언제나 위장, 곧 ‘가면쓰기’일 수밖에 없다.

상진영감의 모습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그는 백정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다. 세속적인 성공이란 다수의 인정과 승인을 의미할 터, 상진영감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 대륙상사의 경영함으로써 전후 자본주의 체제 속에 자리를 마련했다. 골동품이나 고서화를 수집하는 상진영감의 값비싼 취미 역시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흉내내기’(mimicry)였다.<sup>5</sup> 마이너리티들이 이처럼 정체성을 은폐하고 가면쓰기 혹은 흉내내기를 통해 세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비밀’이 탄생한다.

물론 비밀은 마이너리티의 이야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의 원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한다면, 알려졌던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으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알려지는 것이야말로 이야기와 결맞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알려진 경우에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는다. 비밀이 없는 세계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결코 비밀이 없는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는 법이다. 더욱이 현상과 본질이라는 이원론에 따르면, 현상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찾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숨겨진 본질, 곧 비밀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컨대 추리 혹은 미스터리 서사처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된 비밀을 논리적으로 파헤치기도 하고, 때로는 판타지처럼 마성적인 힘에 의해 직관적으로 세계의 이면을 투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마이너리티를 다룬 이야기에서 비밀을 사용하는 방식은 다른 서사양식과 다르다. 원칙적으로 서술자는 허구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모

5 상진영감이 보여 주는 속물성은 백정 출신의 부르주아지가 보여 주는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신흥부르주아지가 과거의 귀족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특성이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천민 출신의 부르주아지인 상진영감을 비판함으로써 ‘고상한’ 자본주의가 가능하리라는 착각이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아래에서 부르주아문화는 계급적 출신과 무관하게 언제나 속물적이다.

두 알고 있는 전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 짐짓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일부러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말한다는 것은 곧 독자들이 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밀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하나는 서술자가 말하지 않아서 독자가 알 수 없는 경우다. 추리소설에서는 비밀이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유지된다. 다른 하나는 서술자가 말했기 때문에, 독자는 알지만 다른 등장인물은 모르는 경우다. 「일월」은 여기에 해당한다. 상진영감이 백정 출신이라는 사실은 다른 등장인물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 독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비밀이 언제 다른 등장인물에게 알려질지 궁금해하는 반면, 작가는 이 비밀이 다른 등장인물에게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서사패턴은 「일월」만의 독창적인 형식이라기보다는 마이너리티를 다룬 이야기에서 널리 사용된다. 1920년대에 백정 해방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상협에 의해 변안되었던 「재봉춘」(再逢春, 1911)<sup>6</sup>은 좋은 예이다. 이 소설은 백정 출신의 여성이 양반가와 결혼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참서 이균영은 일찍이 김참판의 딸 숙희와 정혼했으나, 아버지가 숙희의 이모를 재취로 맞은 까닭에 어쩔 수 없이 파혼을 하고 전 육군 부령 허균의 양녀와 결혼한다. 그런데 이참서와 결혼한 허씨부인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 백성달이 백정인 탓에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허부령의 양녀가 되었던 것이다. 허부령은 이 사실을 미끼로 삼아 백성달에게 돈을 뜯어 갈 뿐만 아니라, 허씨부인에게 결혼반지까지 빼앗아 간다. 그리고 백성달의 아내가 병이 들어 죽기 직전, 딸의 얼굴을 꼭 보고

6 「재봉춘」은 일본 와타나베 카테이(渡辺霞亭, 1864~1926)의 「소우부련」(想夫燐, 1903)을 원작으로 하지만, 1912년 8월 15일 민준호가 경영하던 동양서원에서 '소설총서 제3집'으로 발간할 때 "지리적 배경을 교토에서 서울로 옮겨 등장인물과 설정을 조선식으로 바꾸"면서 당시 백정들의 삶을 다룬다[황연지·스기모토 가요코(杉本加代子)(2022), 「일·한 변안소설을 통한 표기법의 근대화 연구: 『想夫燐』과 『재봉춘』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계명대) 86, p. 50].

싶다며 간청할 때에도 더 많은 돈을 올귀널 기회로 삼았을 뿐이다. 결국 백정이라는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던 백성달은 직접 딸을 만나기 위해 편지를 보내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숙희가 아버지와 만나는 허씨부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모함한다.

이처럼 「재봉춘」은 ‘가정소설’을 표방하면서도 처와 첩 간의 갈등이나 전처소생과 후처와의 갈등을 그린 전대의 가정소설과 완전히 달랐다. 이야기의 진행과정에서 부각된 것은 명문가의 며느리가 된 뒤에 백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친아버지조차 떳떳하게 만날 수 없었던 허씨부인의 처지였다. 그녀는 아버지 백성달을 정부(情夫)로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기보다 누명을 쓰기를 선택한다. 허부령의 고백으로 계급 타파라는 해피엔딩에 이르기까지 출생의 비밀이 정절의 훼손보다 훨씬 무거웠던 것이다.

홍사용의 「봉화가 켜질 때에」(1925)에서도 주인공 귀영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일운동에 참가했다가 일 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했던 여성 엘리트였다. 그녀는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만 일 년 만에 파경에 이른다. 귀영이 백정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귀영은 오래전부터 이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생각하고 있었으면서도 끝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고, 급기야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을 동원하여 연극을 꾸미다가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이처럼 백정을 다룬 소설은 대체로 신분을 숨기면서 생겨나는 사건을 그린다. 이러한 패턴이 널리 자리 잡게 된 것은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과계」(1906)가 이룬 대중적 성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주인공 우시마쓰가 교사로 일하면서 ‘에타’(穢多)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재봉춘」의 허씨부인이나 「봉화가 켜질 때에」의 귀영, 그리고 「일월」의 상진영감과 다르지 않다.<sup>7</sup> 그렇지만 이러한 흥내내기나 가면쓰기를

— www.kci.go.kr —  
7 「일월」의 경우 백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본동영감이나 기룡의 모습에 「과계」

도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백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도덕적 징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밀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마이너리티의 상황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온당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비밀은 반드시 폭로되어야 한다는 믿음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비밀이 폭로되지 않음으로써 비밀인지도 알려지지 않은 채 망각된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비밀이라는 것은 반드시 폭로될 운명을 가진다. 그래서 때로는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무슨 사명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과는 다른 얼굴을 한 채 살아간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무런 왜곡이나 거짓 없이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인간은 가져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누구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비밀은 폭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

### 3. 신분적 ‘차별’과 직업적 ‘혐오’의 교착

황순원이 백정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195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sup>8</sup> 이 무렵 황순원의 문학적 인생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평양 송실학교 시절 처음 문학 활동을 시작한 후 삼십여 년이 흐르는 동안 뚜렷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삼사문학』 동인

---

의 렌타로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물론 신분 폐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렌타로와 달리 황순원은 본동영감과 기룡을 통해 개인의 운명이나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전후의 사상적 풍토나 작가 황순원의 면모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 8 정영훈은 황순원이 형평사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강상호와의 면담을 추진했던 것을 근거로 1957년 무렵으로 추정한다[정영훈(2008), 「백정 관련 연구의 맥락에서 본 「일월」」, 『한국현대문학연구』 24].

으로 참여하면서 문학적 실험을 시도하기도 했고, 해방 전후에는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며 이념적 방향을 거치기도 했다. 결국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자 월남을 선택하고, 전쟁 중에는 서대문중학교(1952)와 서울중학교(1953) 교사로 재직하면서 「카인의 후예」(1953)를 발표하면서 문학적 방향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1957년 신흥대(현 경희대) 문리과대학 조교수가 된 것은 황순원에 대한 문단적 승인이었다.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광섭·주요섭·조병화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제자를 길러낼 뿐만 아니라 당시 국어국문학과에서 필수 커리큘럼처럼 운영되던 학술답사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니, 백정에 대한 관심 역시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짐작된다.<sup>9</sup> 대학원생 조교 전경훈<sup>10</sup> 역시 황순원의 경험과 깊이 연관된 것도 마찬가지다.

소설 이외의 글을 거의 발표하지 않은 까닭에 그 내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황순원은 몇 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일월」 연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재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했던 듯하다. 예컨대 소설 속에서 지교수는 백정의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답사를 진행하면서 「백정에 관한 노트」를 작성하다가 어느 순간 중단해 버렸다. 지교수의 딸 다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엔 굉장한 흥미를 느끼셔서 끌려 들어가셨든가 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옛날 조상 때부터 친했던 건 아니란 걸 밝혀보고 싶으셨던 것 같애. 그치만 이제 와서 그걸 들춰내서 뭐하겠어. 아마 그런 생각이 아버지두 드신 모양이야.”(p. 392)

9 서정범은 황순원과 함께 광주시 경안 답사에 참가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황순원 교수님이 『현대문학』에 「일월」을 연재하고 계실 때였다. 그때가 더운 여름방학이었다.”[서정범(1985), 「그 따스한 햇볕,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p. 43]라고 언급한다.

10 “그가 백정을 소재로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였지만, 정작 첫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특수어를 수집 연구하는 경희대 국문과 서정범 교수의 제보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 때문에 백정 세계를 파고들 적마다 황순원과 서정범은 동행이었다.”(「그 작품의 뒤안: 황순원 편」, 『독서신문』, 1972.1.16.)

그렇다면 지교수가 겪었던 난관은 무엇이였을까? 처음 백정에 관심을 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지교수는 백정을 ‘신분’ 문제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백정이 본래 천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문헌 연구 등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다. 백정의 기원을 탐색하는 작업은 그런 지교수의 목표에도 부합했다. 하지만, 소설이 진행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축산기업조합 ‘노모’ 씨로부터 고려말 두문동 칠십이현 중 몇몇이 성균관에 속한 도축기관 다림방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지교수는 성균관 관인 혹은 반인이란 고려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거란족 침입으로 말미암아 무패해진 성균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노비 백여 명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후손이라고 해도 무방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중의 일부가 소를 잡아 파는 생업 다림방을 했다는 것도.

다림방의 본거지였던 명륜동 성균관 부근을 지교수는 이미 답사한 일이 있었다. 그때 안 사실로는 다림방이란 직업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당시의 벼슬층과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균관 동재 서재에 와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다림방이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고 뒤에 그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위에 오르게 되면 다림방의 뒤를 돌봐주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 증거로, 다림방의 뒤를 적극 돌봐준 사람들을 모신 숭보사란 사당이 있는 것이다. 높을 숭(崇) 값을 보(報) 사당 사(祠). (p. 275)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이 건국된 뒤 서울 동북부의 숭교방에 자리잡은 성균관은 최고의 국가교육기관으로 위세를 떨쳤다. 그래서 ‘문묘 수호’(文廟守護)와 ‘유생 공궤’(儒生供饋)를 위해 일하는 많은 노비들이 성균관 주변에 큰 동리를 이루어 살았다. 성균관의 다른 이름이 반궁(泮宮)이었기 때문에 이 동리를 반촌(泮村)이라고 불렀고, 반촌에 사는 사람을 반인

(洋人) 혹은 반민(洋民)이라고 불렀다.<sup>11</sup> 그런데 성균관에서 제사를 올리거나 유생들이 식사를 할 때 쇠고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반촌 안에 소를 잡는 도사(屠肆)가 설치되었는데, 조정에서는 성균관에 대한 노역으로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는 반민들에게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져 성균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자, 반민은 반촌 밖에 쇠고기를 판매하는 가게를 열었다. 쇠고기를 매달아 놓고 팔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다림방(懸房)이다.<sup>12</sup> 이곳의 수익은 성균관의 재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줄곧 성균관 유생들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을 수 있었다. “성균관 동재 서재에 와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다림방이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고 뒤에 그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위에 오르게 되면 다림방의 뒤를 돌봐주었”(p. 275)던 것이다.

이처럼 한양에서 쇠고기를 판매하는 반민들은 ‘신량역천’에 속했던 소백정과 달랐다. “고려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거란족 침입으로 말미암아 무폐해진 성균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노비 백여 명을 바쳤다는 기록”(p. 275)에서 볼 수 있듯이 신분상으로 엄연히 노비였다. 하지만 소를 잡는 일이 금지되었던 시기에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한양의 상권을 장악했던 반민들은 갑

11 1910년대에 반민 혹은 반촌에 대해 언급한 글은 흥미롭다. “반민이라 함은 즉 속설에 소의 도살을 생업으로 삼는 자를 칭하는 일종의 대명사다. 그러나 이 명칭이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는지 상고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소문 안 부근 일대의 주민은 금일까지도 소도살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옛날에는 그 수가 곱절이나 많았음은 정칙이다. 그러나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 서로 교제와 혼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므로 이 부락의 주민은 세인의 압박과 수치와 결교·혼인의 불허 등의 모욕을 당하는 관계로 인하여 자연히 분개심을 야기하고 분격심이 일어나는 때에 이곳 주민들은 일체 단결되어 남을 위하여 의미를 세우는 데 생사를 돌아보지 않는 기개가 있었으며, 옛날에는 다른 동 사람으로서 이 동에 들어올 수도 없었으며, 이 동 사람이 다른 동으로 이사 가서 사는 일도 없어서 일개 별천지를 형성하였다.”(일재생, 『경성행각』, 『매일신보』, 1916.3.19.)

12 안대회·김세호·박현순·정재훈·조영준(2019), 『성균관과 반촌』, 서울역사박물관.

오개혁으로 노비에서 해방됨으로써 신분상으로도 자유인이 된 뒤에는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근대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작품을 살펴보면 백정들이 부유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재봉춘」에서 백성달이 ‘부유한 백정’이 아니었다라면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꿈꾸기도 어려웠을뿐더러, 애초에 허부령이 그의 딸을 양녀로 삼을 턱도 없었다. 그는 “서울 동촌 구석에 살아서 대대로 주석 고리와 가죽끈으로 자본을 삼고 소와 개의 해부<sup>13</sup>를 업으로 삼던 백성달은 허씨부인이 “성군관 앞에서 자라났”<sup>14</sup>다고 한 것으로 보아 반인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들이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백정 노릇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다. 짐승을 다루는 숙련된 기술이야말로 그들이 근대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백정으로서 삶은 세습이라는 봉건적 질서와 무관하다. 백정은 더 이상 신분이 아니라 직업이 되었고, 이 직업 때문에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십여 년 뒤에 발표된 「봉화가 켜질 때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정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귀영은 남편에게 “밥을 먹기 위하여 일하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드리는 직업이 무엇이 천하오.”<sup>15</sup>라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남편은 귀영을 ‘더러운 년’이라 부르며 내쫓았다. “한창 시절에는 ‘동포다, 형제와, 자매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눈물에서 산다. 약한 자여— 모두 모여라. 한세인 삶을 찾기 위하여……’ 하며, 뒤편들”<sup>16</sup>던 남편이었지만, 정작 아내에게는 전근대적인 신분 차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백정을 신분으로 바라본 남편과 달리 직업으로 이해한 귀영의 인식은 아버지에게 남긴 유언

13 이상협(1911), 『재봉춘』, 동양서원, p. 21.

14 이상협(1911), p. 22.

15 노작[홍사용](1925), 「봉화가 켜질 때에」, 『개벽』 61, p. 25.

16 노작[홍사용](1925), p. 26.



에서도 확인된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시는 백정 노릇 마소.”라는 말을 남긴 채 눈을 감는다. 만약 백정이 신분이었다면 이 말은 현실성이 없다. 신분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세습될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정 노릇을 그만두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기피할 수도 있는 직업이었음을 의미한다.

1925년 8월에 있었던 예천사건을 염두에 둔 조명희의 「낙동강」(1927)도 마찬가지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박성운은 형평사와 장꾼 사이에 시비가 붙자 장거리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형평사원 촌락을 습격하려는 것을 말리며 “직업이 다르다고 사람의 귀천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sup>17</sup>라고 말한다. 이 연설을 듣고 형평사원의 딸이었던 로사는 크게 감화된다. 로사의 아버지는 딸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어 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마치고 보통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다음, ‘수육업’이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딸이 있는 곳으로 이사해 ‘새 양반 노릇’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딸이 근무하는 곳에는 자신이 백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사가 박성운을 쫓아 교사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그의 계획은 수포가 된다.

이처럼 비천한 신분으로 동질화되었던 백정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단이 등장과 함께 계급적으로 분화되었다.<sup>18</sup> 「재봉춘」이나 「봉화가 켜질 때에」, 그리고 「낙동강」처럼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성공을 꾀하는 모습은 박성춘과 박서양 부자처럼 현실에서도 실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920년대 중반에 일어난 형평운동이 분열을 겪었던 것은 백정이 직업적 정체성을 공유하긴 했지만, 과거의 신분이라든가 현재의 경제력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내포했던 까닭이다.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평운동이 시작된 이래 서울 지역과 통합되면서 다림방을 통해서 자본을

17 조명희(1927), 「낙동강」, 『조선지광』 69.

18 계용목의 소설 「장벽」(1935)에서 백정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분적인 굴레 때문이라기보다 가부장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가부장의 죽음과 함께 백정이라는 직업마저 사라져 경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신분적 차별까지 중첩되었던 것이다.

축적한 반인 출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동사와 같이 타협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화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인구 이동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일월」에서 상진영감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백정이라는 신분에서 찾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설령 상진영감이 백정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백정이라는 직업과는 무관했다. 따라서 상진영감이 신분의 굴레를 벗고 성공한 신흥 부르주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정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터무니없는 불이익을 겪다가 죽음으로 과정은 그리 설득력이 높지 않다.

실제로 「일월」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던 소설에서도 신분으로서의 백정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박화성의 「샌님 마님」(1965)에서는 양반 가문 자손과 백정 집안 출신의 삶이 병치된다. 여기에서 초점화자인 샌님마님은 과거의 체통 따위는 돌아볼 겨를이 없을 만큼 몰락해서 학교 소사로 들어간 남편을 따라 기숙사 식모가 되었다. 당시 기숙사에는 여러 학생이 있었는데, 백정 집안 출신이었던 인천 학생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서 예나 지금이나 땡땡거리고 살고 있는 반면, 샌님마님의 딸인 정선은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삶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할뿐더러 손녀애에게 양재를 가르치는 중이다. 이처럼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라는 샌님마님의 자부심 따위는 현실 속에서 아무런 현실적 의미가 없다. 출신이나 신분보다도 경제력이 더욱 중요한 세태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분에 주목하여 “백정의 시조는 천인이 아니었다는 걸 논증해 보려 했”던 지교수의 「백정에 관한 노트」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노비 출신인 반인의 등장과 함께 백정을 신분적 동일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막다른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sup>19</sup> 현대적인 의미에서 도축업에 종사하는 백정의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소백정과 반인이 전혀 다른 신분이었음

— www.kci.go.kr

19 정영훈(2008), p. 299.

을 확인했던 것이다. 결국 「일월」은 본돌영감, 상진영감, 나미 아버지와 같은 구세대들이 신분에 대한 오래된 편견에서 사로잡힌 것과 달리, 인철을 위시하여 기룡, 나미, 다혜와 같은 신세대들은 신분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세대론적 대비로 마무리된다. 다해도, 나미도 인철이 백정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대신 백정 문제는 실존적 고민으로 전유된다. 인간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과 무관하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운명으로 신분을 제시하는 것이다.

백정들의 삶을 신분으로 환원하는 태도는 1970년대에 발표된 김원일의 「노을」에서도 발견된다. 흔히 분단문학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아버지 김삼조가 남로당에 가담한 계기를 백정에 대한 오래된 신분 차별에서 찾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다른 농민들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했던 아버지의 계급적 위치, 곧 가난의 문제는 작가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만약 아버지의 선택을 신분적 차별로 인한 원한만으로 이해한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과거의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선택이 가난과 같은 계급적 문제와 중첩된 문제라면 분단의 극복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재의 과제로 남겨져야 할 것이다.

근대 이후 백정을 괴롭혔던 것은 신분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직업에 대한 혐오 어린 시선이었다. 백정 문제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신분 차별의 봉건적인 구습일 뿐만 아니라 근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특정 직업에 대한 혐오의 현실을 가리킨다. 또한 「재봉춘」, 「봉화가 켜질 때에」, 「낙동강」 등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 주인공들이 신분 때문에 고통 받는 백정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었던 모습에서 젠더 문제를 떠올릴 수도 있다. 아버지의 욕망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재현된 여성의 형상은 가부장적 질서에 얽매어 있다는 증좌이기 때문이다. 백정은 신분과 직업, 그리고 계급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 4. 가까스로 존재하는 목소리들

동양의 고전 『장자』 내편에 있는 「양생주」 중에 ‘포정해우’(庖丁解牛)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포정은 문혜군(文惠君)을 위해 소를 잡는데, 그 솜씨가 매우 출중했다. 포정의 솜씨에 찬탄을 그치지 않는 문혜군을 향해 포정은 소를 잡을 때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연의 결을 따라 커다란 틈새를 치며, 커다란 공간에서 칼을 움직이되 본시 그러한 바를 따를” 뿐이라고 대답한다. 포정은 이처럼 자연의 섭리를 따름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도의 경지로 승화시켰고, 문혜군에게 양생의 비밀을 깨닫게 했다.

포정과 문혜군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이때만 하더라도 소 잡는 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차갑지 않았던 듯하지만 어느 틈엔가 천역으로 바뀌었다. 농경문화가 정착과 함께 생산력의 중요한 요소였던 소가 신성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짐작된다. 수렵문화에 대한 이질감은 백정을 천대받는 ‘신분’으로 제도화시켰다. 이 때문에 신분이 해체되어 한국사회가 재구조화될 때, 백정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복잡한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황순원의 「일월」은 이렇듯 마이너리티로서의 백정에 대한 소설적 재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마이너리티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월」에서 눈여겨볼 인물은 지교수다. 그는 소설의 1부와 2부에서 백정의 삶을 재현하는 대리인(agent)이었다. 본돌영감을 말하지 않는다. 신성한 것으로서의 백정의 삶은 반복적으로 수행될 뿐 언어로 재현되지 않는 법이다. 상진영감도 말하지 않는다. 백정의 삶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묵하는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지교수의 입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지교수가 본돌영감을 만나면서 소설이 시작하는 이유일 것이다.

마이너리티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설령 마이너리티들이 말한다고 해도 그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혹은 그 이야기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대다수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 용

열거림 중에서 가까스로 포착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리티가 말한, 혹은 마이너리티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 끝까지 말하지 않는 마이너리티의 삶이란 언제나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다. 현실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도 찾을 길 없다.

지교수는 마이너리티의 작은 목소리와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춘 유일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교수는 점차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 소설 속에서 사라졌다. 그것은 아마 백정의 삶을 하나의 목소리, 곧 신분으로 환원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마이너리티를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잘못 중의 하나다. 마이너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마이너리티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그리 온당하지 않다. 다양하면서도 다층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마이너리티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수렴되는 지배집단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다가 나타난 일일 것이다.

형평운동의 깃발이 날린 지 백 년이 지난 지금, 백정은 이제 죽은 단어가 되었다. 그 세월 동안 백정을 인간 아닌 인간, 곧 비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비인간으로 바라본다. 대상만 달라졌을 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에 대한 새로운 차별언어가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하나의 단어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마이너리티들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백정이 신분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계급, 그리고 젠더 등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듯이, 마이너리티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잉여와 결핍 속에서만 존재한다. 마이너리티를 다른 서사물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가면쓰기와 흉내내기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잘 보여 준다. 그렇듯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기에 마이너리티는 다른 마이너리티와의 공감대를 무수히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연대의 가능성을 무한히 증식시킬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중섭(1994), 『형평운동연구: 일제침략기 백정의 사회사』, 민영사.
- 노작[홍사용](1925), 「봉화가 켜질 때에」, 『개벽』 61.
- 문철영(1991), 「고려 말 조선초 백정의 신분과 차역」, 『한국사론』 26.
- 박종성(2003), 『백정과 기생: 조선천민사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정범(1985), 「그 따스한 햇볕」,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 성민엽(1983), 「존재론적 고독의 성찰」, 『일월』 (황순원전집 8), 문학과지성사.
- 안대희·김세호·박현순·정재훈·조영준(2019), 『성균관과 반촌』, 서울역사박물관.
- 유철상(2007), 「꿈의 형상화를 통한 신분의식의 극복」, 『현대문학이론연구』 31.
- 유효종·이와마 아키코 편(2012),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 개념과 정책의 비교사회학』, 한울.
- 이상협(1911), 『재봉춘』, 동양서원.
- 이우성(1962), 「한인, 백정의 신해석」, 『역사학보』 19.
- 이준구(1998), 「조선전기 백정의 범죄상과 제민화 시책」, 『대구사학』 56.
- 일재생(1916), 「경성행각」, 『매일신보』, 1916.3.19.
- 전경훈(1070), 「그 작품의 뒤안: 황순원 편」, 『독서신문』, 1972.1.16.
- 정연희(1999), 「황순원의 장편소설 「일월」 연구」, 『현대소설연구』 10.
- 정영훈(2008), 「백정 관련 연구의 맥락에서 본 〈일월〉」, 『한국현대문학연구』 24.
- 조명희(1927), 「낙동강」, 『조선지광』 69.
- 홍명희(1929), 「「임거정전」에 대하여」, 『삼천리』 1.
- 홍주영(2021), 「황순원 문학과 서정범의 은어 연구에 깃든 타자성 탐구의 의미 연구」, 『현대문학연구』 65.
- 황순원(1983), 『일월』(황순원전집 8권), 문학과지성사.
- 황순원 외(1985),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 황연지·스기모토 가요코(杉本加代子)(2022), 「일·한 번안소설을 통한 표기법의 근대화 연구: 『想夫憐』과 『재봉춘』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계명대) 86.

원고 접수일: 2024년 1월 22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6일, 게재 확정일: 2024년 2월 6일

## ABSTRACT

The Cultural History of  
Butchers Through  
Hwang Soon-won's  
“The Sun and the Moon” (*Ilwol*)

Kim, Jonguck\*

Hwang Sun-won's novel “The Sun and the Moon” (*Ilwol*), published in the 1960s, received much attention both within and outside the literary world for its treatment of the issue of the butcher. The novel dealt with minorities' response to social discrimination through brothers from a butcher background. In the novel, the older brother regards his job as sacred, while the younger brother becomes a bourgeoisie while concealing his humble status. This narrative structure was not a unique pattern of this work, but rather a feature founded in many works dealing with minorities.

However, in this work, Hwang Soon-won described the butcher as a person discriminated against due to his social status, which is anachronistic considering that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lass system was abolished. In fact, regarding the butcher's lif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rofessional hatred was more realistic than class discrimination. Nevertheless, cracks occurred in the narrative due to the author's narrow view of defining the butchers only by their social status identity.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e limitations were not unique to this work. As a minority, the butcher was at the intersection of not only social status but also occupation, class, and gender. Only by considering this complex perspective will it be possible to reveal in detail the aspects of butchers' existence and explore various possibilities for solidarity.

**Keywords** Hwang Soon-won, Butcher, Social Status, Occupation, Class, Mminority, Intersectionality